



## 피겨 장군 왕중왕 무대 오르다

김예림이 지난 19일 일본 삿포로 마코마나이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2-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 NHK 트로피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펼치고 있다.

### 김예림, ISU 시니어 그랑프리 5차대회서 금메달 획득

내달 8~11일 개최 파이널 출전... 김연아 이후 13년만

“육삼내지 않으려 노력... 파이널서 완벽한 연기 펼칠 것”

피겨 장군 김예림(19·단국대)이 한국 여자 선수로는 김연아(은퇴) 이후 처음으로 시니어 그랑프리 금메달과 왕중왕전 파이널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김예림은 지난 19일 일본 홋카이도현 삿포로 마코마나이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 NHK 트로피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6.90점, 예술점수(PCS) 66.37점, 감점 1점 등 총 132.27점을 받았다.

소프트프로그램과 합해 최종 점수 204.49점을 받은 김예림은 1위를 차지했다.

이달 초 프랑스 앙제에서 열린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김예림은 그랑프리 포인트 28점을 얻어 그랑프리 6차 대회 결과에 관계없이 파이널 출전권을 따냈다.

그랑프리 파이널은 올 시즌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상위 6명이 출전하는 ‘왕중왕전’이다.

두 차례 그랑프리 대회에서 거둔 성적을 합산해 출전권을 배분한다. 우승하면 15점, 준우승하면 13점, 3위에 오르면 11점 등 순위에 따라 포인트가 주어진다.

남녀 싱글을 뺀 한국 선수가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은 2009년 11월 2009~2010시즌 그랑프리 5차 대회의 김

연아 이후 김예림이 13년 만이다.

아울러 김예림은 2009~2010시즌 그랑프리 파이널에 나서 우승한 김연아 이후 13년 만에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에 나서는 한국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남자 싱글에서는 차준환(고려대)이 2018~2019시즌 출전권을 획득해 동메달을 수확한 바 있다.

이번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에는 피겨 강국인 러시아 선수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한국 선수들의 입상 가능성이 커졌다.

김예림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2개 대회 연속 메달을 일구며 왕중왕전 무대에 서게 됐다.

그랑프리 파이널은 12월 8~11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다.

소프트프로그램 1위에 오른 김예림은 이날 12명의 선수 중 가장 마지막으로 빙판에 나섰다. 영화 ‘42년의 여름(Summer Of 42)’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김예림은 첫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뛰어 기본점수 10.10점에 수행점수(GOE) 1.43점을 따냈다.

이어 더블 악셀과 트리플 루프도 실수없이 소화했다.

하지만 이어 시도한 트리플 플립에서는 착지를 하다 흔들리면서 빙판 위에 손을 짚는 실수

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콤비네이션 점프 회전수가 90도 수준에서 모자라는 경우) 판정이 나와 GOE 1.67점을 잃었다.

체인지 콤비네이션 스핀을 최고 난도인 레벨4로 연기한 김예림은 기본점수에 10%의 가산점이 붙는 연기 후반부의 첫 점프에서 크게 흔들렸다. 트리플 플립-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를 시도할 계획이었는데, 플립 점프를 뒀 후 넘어지면서 연결 점프를 뛰지 못했다.

하지만 김예림은 침착하게 다음 연기를 이어 갔다.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점프를 클린 처리하며 안정을 되찾은 김예림은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살코에 앞서 뛰지 못한 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를 연결해 뛰었다.

감점을 최소화한 김예림은 플라이 캠프 스핀(레벨), 스텝 시퀀스(레벨3), 코레오 시퀀스 플라이 체인지 콤비네이션 스핀(레벨8)으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경기 후 김예림은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프리스케이팅에서 크게 육삼 내지 않고 타려고 노력했는데,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하게 돼 무척 기쁘다. 파이널에서는 오늘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해 더 완벽한 연기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동메달리스트인 사카모토 가오리(일본)가 201.87점으로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은 198.12점을 기록한 스미요시 리온(일본)에게 돌아갔다.

함께 출전한 지서연은 184.14점으로 6위, 위서영(이상 수리고)은 176.74점으로 8위에 자리했다. /뉴시스

## 전국 탁구인들 무주서 기량 발휘

반딧불이배 전국대회 성료

50개 팀 1200여명이 참여

제8회 무주 반딧불이배 전국탁구대회가 지난 19일과 20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무주군과 무주군체육회가 주최하고 무주군탁구협회(회장 이주원)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선수 1,200여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전국 규모 개최인 만큼 체육인들과 군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19일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개회식에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 등 내빈 등이 참석했다.

황인홍 군수는 “반딧불이배 전국 탁구대회를 통해 무주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 “탁구가 국민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한 반딧불이배 전국 탁구대회를 통해 더욱 탁구 붐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개인전 및 단체전이 열렸으며, 단체전은 혼성 4인, 복식 혼성 복식 전 경기에 모두 50팀이 참여,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규모의 대회로 무주를 알리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의 전국대회를 유치해 스포츠 도시의 면모를 갖추려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소외계층 아동들과 봉동초등학교, 인후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들 총 70명을 대상으로 ‘공회용 선수와 함께하는 전북은행 어린이 스포츠 클럽’을 마련했다.

## 도내 배드민턴 꿈나무들 女복식 간판과 ‘특별한 경험’

전성장학문화재단, 공회용과 함께하는 어린이스포츠클럽 마련

기초 강습 선보여... 참여 아동들에게 고급 라켓 선물 기쁨 선사

대한민국 배드민턴 여자복식의 간판 공회용 선수와 도내 배드민턴 꿈나무들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소외계층 아동들과 봉동초등학교, 인후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들 총 70명을 대상으로 ‘공회용 선수와 함께하는 전북은행 어린이 스포츠 클럽’을 마련했다.

지난 16일에서 18일까지 전북은행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마련됐던 행사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은행 어린이 스포츠 클럽 주제에 아이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마련해 꿈과 비전을 키워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1일 1회, 20명 내외로 총 3회 진행했고 공회용을 비롯한 배드민턴 팀 선수 8명과 감독, 코칭스태프들이 함께 기초 강습을 선보였다. 또 이번엔 참여한 아동들에게는 고급 배드민턴 라켓을 선물해 기쁨을 선사하기도 했다.

도담 지역아동센터장은 “세계적인 선수와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 준 전북은행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배드민턴팀 김효성 감독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능기부를 통해 미래의 배드민턴 꿈나무들과 만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축! 전주매일 캠페인